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4호 【루체 제23296호】 주제 99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대병국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외교부 부부장 장지군 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애평동지, 중앙외사판공실 부주임 구원평동지,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 무대위동지를 비롯한 일행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대병국동지는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호금도동지의 인사를 정중히 전달하고 자신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호금도동지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대병국동지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접견에서는 조중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담화가 진행되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처장즈에 새겨진 백두산녀장군의 빛나는 모습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더불어 세계에 나래치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상이 항일무장투쟁 시기 수많은 경전 장들에 영웅적 위훈을 아름다게 가진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자욱으로 하여 더욱 빛발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부는 조국의 광복과 무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처장즈유격구방위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덧 75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훌륭한 신념과 의지,

뛰어난 지략과 무비의 용감성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방침을 결사행진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는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유격대에

입대하기 전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전법과

전술에 정통하였다.

싸움은 충만 가지고 하지 말고 머리를 써야 한다. 그래야

한자루의 총이 백자루의 총을 대신할수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처

음으로 참모를 거듭한 일제는 1만명에 달하는 무력으로 처장즈

유격구방위전투에서 명성을 떨

치하였다.

주제 24 (1935)년 10월 항일유격대를 요원기에 암살하기 위한 유격구《토벌》에

서 참모를 거듭한 일제는 1만명에 달하는 무력으로 처장즈

유격구에 대한 《토벌》을 시도하였다.

당시 처장즈에는 적력량의

100분의 1정도의 무장력량이 유격구를 방어하고 있었다. 부대의 기본력량은 원정을 며나고 유격구에 유격대 한개 중대와 반일자위대원들, 청년의 용경전장들에 영웅적 위훈을 아름다게 가진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자욱으로 하여 더욱 빛발치고 있다.

일부 대원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워길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혀있었다.

전투는 다음날 이론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적들은 하늘에 비행기를 띠우고 포까지 쏘아면서 덤벼들었다.

처장즈유격구를 삼으로 포위하고 달려들던 적들은 고동하기 속에 능숙하게 습습하시여 전투승리를 크게 기여하였다.

항일의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시각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긴장성을 늦추고 앞으로 있게 될 전투에서 적의 약한 고리가 무었이겠는가를 가늠해보시며

적들을 수제에 물어놓고 빠르게 표장을 찾고 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적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쓰는것이 아니라고, 움직이면 우리의 진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일깨워주시였다.

아무리 폭격과 포사격을 가하여도 조선인민혁명군 진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적들은 김정숙동지께서 예전히 전투에

김정숙동지께서는 험악한 환경에 힘을 더해 전투를

김정숙동지께서는 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갈 드높은 열의

김 일 성 종 합 대 학 형 양 치 학 대 학 에 서

영광의 교정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우리 나라 보건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 주제의 학교육의 본보기 단위로 훌륭하게 전변되어 그 이름, 멀치고 있는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은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영적으로 빛나는 영광의 교정이다.

얼마 전 대학을 찾으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의 자랑인 혁신의 걸과마다 아로 세겨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감회 깊이 주시하고 수령님의 직접적인 말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해 창립되고 발전하여 평양의 학대 학은 오늘 나라의 보건기술인재 양성의 믿음직한 자지의 하나로 자리잡았고 하시면서 인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바쳐온 수령님의 은덕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특히 우리나라 이학교육이 원종장』인 평양의 학대학을 본보기 단위로 혁대적으로 꾸고 높아진 학부모의 과학교육간 부후비를 선방성 있게 기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보건기술인재 양성과 학과 학부 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어버이 수령님의 직접적인 말기와 세심한 지도가 있어 주제 37(1948)년 9월 2 8일 평양의 학대학(당시) 이 창립되게 되었다.

평양의 학대 학이 창립됨으로

써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제의 학과 학부 전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진정 대학이 걸어온 60여

년의 혁사는 대학교직원, 학생

들이 대 한 백두산 3대 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 흘러온 사랑과 믿음의 혁사였다. 이를 멀치고 있는 김 일성종합대학은 백수십차, 항일의 너성영웅의 정승숙동지의 혁지 말습만도 어려차례에 달하였으니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학의 교육사업 발전을 위해 비치신 백두산인들의 심혈과 고고는 정성 끝이 없는것이었다.

평양의 학대 학이 나라의 위력 한의 학과 학부인재 양성기지, 치료에 방지기로서의 사명을 헌신하고 수령님의 혁명을 순찰하기 수령님과 함께 혁명을 보호하고 우리 원군에게는 강의와 실습을 밀접히 결부시키 학생들에게 산식지를 줄줄 있게 실습기지들을 꾸리었다고 치하해주시었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총업생들이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한 민보건체도를 꽁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표창을 표시하시면서 대학교직원, 학생들이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신 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진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마다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같이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와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 속에 숭고한 혁신은 장군님의 혁명을 보호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대하여 더욱 활짝 꽂혀나갔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풀으로 지나고 대학사업에 남달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은

전후의 그 어려웠던 시기 미생물 학강좌를 찾으시며 표본들을 친히 수여주시며 의학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치료에 박사 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혁신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 차례나 대학사업을 지도해 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이시다.

학생들은 올림 소박한 편지로 몸소 보여주시었으며 전선시찰의 길에서 평양의 학대 학을 전국의 본보기 대학으로 구현해 끌어온 시랑과 은정을 애쓰며 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에 불멸의 명도자로 기념 5도장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오늘은 이렇게 대학에 찾아오시여 일군들과 교

영광의 그날 오픈 시간에 걸쳐 연혁소개실과 여러 실습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실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의와 실습을 밀접히 결부시키 학생들에게 산식지를 줄줄 있게 실습기지들을 꾸리었다고 치하해주시었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총업생들이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한 민보건체도를 꽁고발

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표창을 표시하시면서 대학교직원, 학생들이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신 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진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마다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같이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와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 속에 숭고한 혁신은 장군님의 혁명을 보호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대하여 더욱 활짝 꽂혀나갔다.

언제인가는 머니면 대양과 대륙을 넘어 사랑의 비행기까지 떠 우수여 수많은 실험용동물들을 마련해주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대학에 찾아오시여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못내 민족해하시며 본에 넘친 평가의 말씀까지 주시였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운, 더 큰 영예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함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김 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 학과

희미한 오랜 일군들과 교

원,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의

절세 위인을 우러러 뜨겁게 굽이친 남녘의 민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님은 그가 지니고 있는 봉도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향과 협상,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참으로 의의 깊은 사변들로 가득했던 격동과 환희의 해 주체 99 (2010) 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우리 인민이 선군의 찬란한 빛발 아래 민족번영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걸 풍같이 달려온 2010년, 이제는

수령 복, 장군복을

참으로 뜻깊은 나날들로 이어져 왔다.

우리 민족이 역사의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횡포로 준엄한 정세속에서 신실드높이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온 울해의 두정로정을 들이켜보는 남녘겨레들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로 한신심을 더욱 굽게 해준 울해의 사변적인 현실들은 남녘겨레들에게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따를 때 민족의 휘황찬란한 앞길이 반드시 펼쳐진다는 드림없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누리는 행운민족

『김일성수령님과 김정일수령님은 세계한분들이시다!』

이것은 지난 10월 남조선의 한로동자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하여 터친 짐상의 웨인이이다.

절세의 위인들을 경모하는 글들을 인터넷트싸이트에 올리었다고 하여 철창속에 갇힌 그는 범정에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위대성을 칭송한것이 어떻게 죄로 되는가』고 항변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그 신념은 강철같이 변함 없다.』고 당당하게 휘쳤다.

너무나도 자신만만한 태도와 거칠없는 표현으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한 그의 담담하고 신념에 넘친 소행은 남조선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열렬한 지지와 잔인의 탁월한 사상과 봉도풍모, 고매한 덕망에 대한 끌끌없는 매혹과 흠토실의 분출로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따르는 남녘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울해 남녘의 민심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되어 세차게 굽이쳐 흘렀다.

울해 민족사에 의의 깊고 격동적인 사변들이 적지 않았다.

내외의 커다란 판식속에 지난 9월에 열린 혁사적인 조선소작제시정책을 평결하기 위해 남조선을 터친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민족을 통진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도 외세와 암합하여 그로써 남조선에게는 높이 모인 위세이며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인 위세이며 그것으로 하여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짐상으로 험갑았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향해 남조선세계에 높이 모인 위세이며 그로써 남조선을 터친 그들은 우리 군대와 민족의 억척 같은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울해에 진행하신 두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식으로 남녘겨레의 가슴속을 크나큰 민족적 긍지로 설레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끌끌없는 경모의 정은 역사가 되고자 했던 그는 1. 15 광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남조선각지에서 열린

다양한 형식의 기념행사들에서도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들은 년초부터

행동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 활동들을 통해 『북이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할 최종단계의 작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앞을 다루어 보도하였다.

각계층 인민들은 울해에 들어와 편속 위해진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자원적 조치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의미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분출되었다.』고 평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인터넷트홈페이지에는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현집들이 단호히 저지시키고 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언론들도

선군정의 길에서 펴펴난 혁명일화 등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편집물을 지면과 화면에 정중히 보시였다.

한 시인은 우리 겨레를 누리는 수령부, 장군부에 대한 한없는 궁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사파에

국에 죽의 평도를 따라 자주통일의 한 흰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를 시에 담아 이렇게 노래하였다.

장군님은 하늘이십니다
장군님은 태양이십니다
장군님 손길따라 가는 길
만번이 꽂피는 행복의 길

장군님은 오늘이십니다
장군님은 봄이십니다
장군복 수령복 민족의 복
장군복 수령복 세계의 복

이렇듯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 없는 칭송과 간결한 그리움속에 흘러온 각 이해의 나날들은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뜻을 따라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기어이 통일조국을 안아오고 애달 맴세로 가슴 불태웠다.

한편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울해에 조선반도정세가 국도로 침에한 속에서도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남조선인들은 울해에 전진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각계층 인민들 속에서 울해 나온 이 목소리들은 선군의 위력으로

포악무도한 외세의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보수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그대로 어려웠다.

한편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에

『공연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남조선인들은 울해에 전진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남조선인들은 울해에 전진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남조선인들은 울해에 전진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남조선인들은 울해에 전진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남조선인들은 울해에 전진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남조선인들은 울해에 전진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남조선인들은 울해에 전진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경제강국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는 매우

신공판임 등 여유를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여력에도 드는 않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찬란한 금지이었다.

뒤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특별 공동활동훈련을 보신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들은 년초부터 행진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 활동들을 통해 『북이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할 최종단계의 작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앞을 다루어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인들은

행사장들에서 『김정일국방위원회장에 대한 친선과 협력』 청송과

1. 15 광동선언발표 10돐의 의미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분출되었다.』고 평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인터넷트홈페이지

는 민족의 혁명을 체험하면서 남녘인민들이 더욱 더 가다듬게 된 신심이며

탁자에 풀어놓은 글로 차고 넘치였다.

생명재산을 지키면서 침략자들을 위한 협력에 의해문이다.』

그러면서 평화주의 위력한 방해를 마련하고 파악한 공격전으로

호전세력을 진퇴량난의 합정으로

불사랑으로서는 풀어놓으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앞을 다루어 보도하였다.

각계층 인민들은 울해에 들어와 편속 위해진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자원적 조치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혁명을 풍靡로 풍물치를

우리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분출되었다.』고 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렇도

아래 우리 공화국은 주체철과 주체비탄, 주체제로 폭포를 뿐이어서 솔직하고 대개도간도자치와 같은 대기

민족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며세워 조선은 결집하면 한다는 선군조선의 신념과 위용을 온 세상에 남김 없이 파악하였다.

남녘겨레들은 군대와 인민이 당의

우리에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철학으로서는 철물리칠수 있는 자위적 적핵역제력을 갖춘 불파의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이 오늘은 경제강국의 렇도를 향해 폭풍처럼 대고자세로 대개도간도자치와 같은 대기

민족적 창조물을 놓아두지 않고 대개도간도자치와 같은 대기

생명재산을 지키면서 침략자들을

도전을 일거에 짓부실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이다.』

그러면서 평화주의 위력한 방해를 마련하고 파악한 공격전으로

호전세력을 진퇴량난의 합정으로

불사랑으로서는 풀어놓으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앞을 다루어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경창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렇도

아래 우리 공화국은 주체철과 주체비탄, 주체제로 폭포를 뿐이어서 솔직하고 대개도간도자치와 같은 대기

민족적 창조물을 놓아두지 않고 대개도간도자치와 같은 대기

